

광주 IM선교회 시설 간 교류 있었다...감염 폭증 우려

광주TCS 국제학교 합숙교육 탓 이틀새 113명 확진자 발생

IM선교회 관련 다른 시설인 안디옥교회 부목사 자녀 참여

전국적 규모의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 지역 기숙형 비인가 교육시설 발(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 지역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 4곳 중 3곳에서 시설 간 교류와 방역 수칙 위반 등을 통해 확진자 150여 명이 쏟아지면서 추가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12명(광주 1645~1656번째 환자)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명의 감염 경로는 ▲안디옥 트리니티CAS 관련 5명 ▲광주TCS 국제학

교 관련 4명 ▲기존 확진자 접촉 2명 ▲조사 중 1명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IM선교회 관련 기숙형 비인가 교육시설 4곳 중 3곳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발생 현황을 보면 ▲광주TCS 국제학교(광산구 한마음교회) 관련 113명 ▲에이스TCS 국제학교(북구 빛나리교회) 관련 37명 ▲안디옥 트리니티 CAS(서구 안디옥교회) 9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러한 집단 감염은 지난 23일 에이스TCS국제학교 내 집단 감염 발생을 계기로, 전수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에이스TCS 국제학교, 광주TCS 국제학교(26~27일, 교직원·학생·교인 135명 중 113명 양성), 안디옥 트리니티 CAS순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안디옥교회 부목사(광주 1652번째 감염 환자)의 자녀로 알려진 광주 1639번째 환자가 광주TCS 국제학교에서 지난 18일부터 합숙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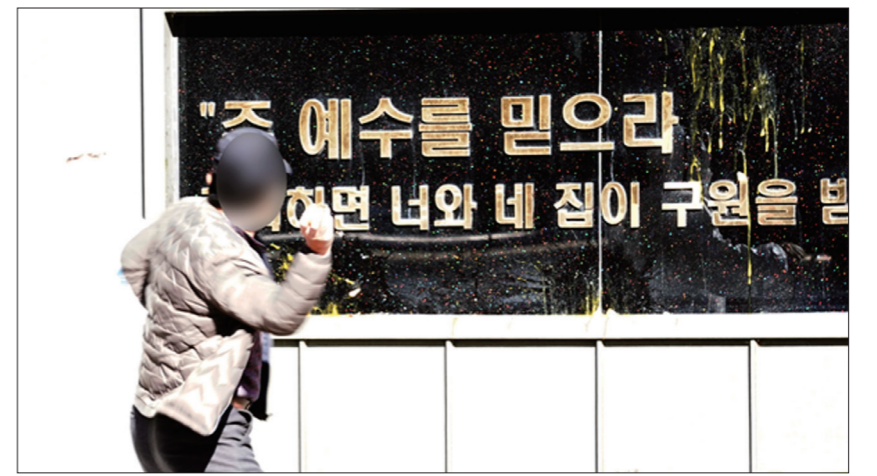
“밀집·밀접·밀폐”된 공간에서 숙식·수업·예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만큼, 시설별 교류가 잦았다면 감염 확산세가 견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안디옥교회 부목사가 자녀에게 감염된 뒤 지난 24일 예배(1~5부, 550여 명 참석) 과정에 설교를 했을 가능성과 안디옥교회 교인 일부가 광주TCS 국제학교 합숙 교육에 직·간접 참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방역당국은 안디옥교회 신도수가 1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전수검사를 통보했으나 신도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디옥교회는 과거에도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교인들이 교적을 숨겨왔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종교 공동체 특성상 내집단 지향 성향이 강하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예배 외 모임·지역간 교류 등을 한 만큼 선제적 진단 검사 대응과 역학조사에 필요한 진술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광산구 광주TCS국제학교에 계란을 투척하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종교 교육시설 학생·교직원·학부모들은 확진자 접촉·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확진자들이 교육시설

간 교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폐쇄회로(CC)TV영상,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자료 등을 확보해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유나기자



사회적 합의 6일만에 택배노조 총파업 결의

고 있다.

사회적 합의 옛새만에 전국택배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택배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내일까지 태풍급 바람에 한파 온다...정부 긴급회의

장대교량 통제·선박 결박·코로나19시설 고정 요청

오는 28~29일 태풍급 바람과 함께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5시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이 주재하고 관계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도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28~29일 사이 전국에 최대 순간풍속 시속 90km(초속 25m)이상의 태풍급 바람이 불고, 중부 내륙과 전라권 일원에는 최대 10~15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이라 예보에 따라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강풍과 풍랑에 대비한 옥외시설물·선박의 안전 관리

와 대설·한파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옥외 입간판, 야외 공사장,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어선·선박은 사전 결박·대피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23일 거제 해상에서 침몰한 대양호의 실종자 수색이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고 재발이 없도록 선제적인 출항 통제와 관리를 주문했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도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했다.

교량 연장이 매우 긴 장대교량인 서해대교와 인천대교 등은 교각에 의한 와류(소용돌이) 발생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

큼 강풍 발생 시 시설기준에 따라 통제 또는 감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장대교량은 10분 간 평균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면 통행을 금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에 전막 형태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등 관련 시설의 고정 및 철거도 요청했다.

정부는 또 출퇴근 시간대 교통 마비가 없도록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대중교통을 증편하도록 했다.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재난 취약계층은 재난도우미를 통한 말차 관리에 들어간다. 재난도우미는 현재 전국적으로 38만 명이 지정·운영 중이다.

최이슬기자

전남, 산발적 감염경로 코로나19 추가 확진

전남에서 산발적인 감염경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나주, 화순, 영암, 고흥 등 4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자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735~739번 확진자로 분류

됐다. 나주에서는 서울 강동구발 접촉자 735번 확진자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738번 확진자가 나왔다.

화순 736번 확진자는 화순전남대병원 입원을 위한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영암 737번 확진자는 어린이집 기준 감염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고흥 739번 확진자는 광주지역 종교단체 관련 확진자인 광주 1500번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김정환기자

“무등산 난개발 막는다” 민·관·정 협의회 출범

광주시는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연립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시킨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시민단체협의회,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광주시의회, 광주시 시민권위원회 등이 민·관·정을 대표해 총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신양파크 호텔부지 공유화 방안,

공유화 이후 활용방안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무등산 일대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